

# 藏書閣 소장 李王家 資料를 통한 李王職 家務의 성격

강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 1. 서론

본고에서는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이하, 장서각)에 소장된 李王家 자료에 대한 提言과 李王職의 職務에 해당하는 李王家 家務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연구는 ‘이왕가 자료’에 대한 구분이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정리되지 못했음과 이왕직의 직무를 그 목적과 연관해서 이해한 시도가 다소 소략되었던 현실에서 필요성이 요구된다.

1910년 8월 29일, 제국 일본이 대한제국에 朝鮮總督을 둠으로써 植民地 朝鮮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황실은 일본 천황가[家]에 편입되었다. 이것으로 일본에는 1910년부터 1947년까지 ‘皇族, 王族, 公族, 華族, 一般臣民’의 신분이 존재하게 되었고,<sup>1)</sup> 朝鮮王公族은 準皇族의 예우를 약속받았다.<sup>2)</sup> 이왕가를 전담하는 기구 李王職은 대한제국 시절 궁내부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다만 ‘천황가에 입적된 이왕가’라는 前提는 이왕직을 일본 궁내성에 소속하게 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그들의 內務와 직원의 감독권 등은 조선 총독에게 있었다.

이왕가는 종래에 조선왕실의 宗統과 그 예식을 지켜왔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주체적인 성격이 강조된 바 있다.<sup>3)</sup>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러했는가라는 의문의 해결과, 그를 보완하기 위해 실증적인 도구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왕가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왕가의 보필을 전담으로 하는 이왕직이 관리한 자료이면서, 이왕가 및 이왕직의 설치 목적과 조직의 의의를 살피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자료가 국내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片鱗에 가까운 정도의 분량인 관계로 전반적인 現狀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sup>4)</sup>

우선 가깝게 살펴볼 수 있는 장서각의 이왕가 자료는 收藏하게 된 연혁이 복잡다단하다는 배경과 자료의 多種性을 이유로 정리의 필요가 유보되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Ⅱ. 장서각 소장 이왕가 자료의 성격’이라는 장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단, 장서각 소장 자료 중에서도 이왕직 형성 이후 만들어지고 수집된 ‘이왕가 자료’에 한해서 집중하겠다. ‘Ⅲ. 이왕직의 이왕가 家務의 범위와 分掌의 고찰’에서는 Ⅱ장에서 논할 이왕가 자료를 활용하여 이왕직 성격을 再考해보겠다. 이왕가와 이왕직은 그 始終을 함께 했다. 이왕직은 이왕가를 위해 일하지만 궁내성 소속 직원으로 선발되어서 총독부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일종의 委託 성격을 지녔다. 그렇다면 이들의 家務라는 업무의 영역은 별도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두겠다. 그 목적이 이왕가 자료의 성격을 규명할 귀납적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1) 新城 道彦, 『天皇の韓國併合』, 法政大學出版局, 2011, 참조.

2) 純宗을 昌德宮李王, 高宗을 德壽宮李太王에 봉하고, 李垞과 李熙는 창덕궁 이왕의 懿親이므로 公에 임명하는 등으로 조직하면서 기존 대한제국 황실의 直系 구성원은 ‘王族’에, 傍系에 해당하는 경우는 ‘公族’으로 편입되었다. (李旺茂, 「대한제국 황실의 분해와 王公族의 탄생」, 『한국사학보』 64, 2016, pp.7-31; 윤대원, 「일제의 한국병합과 ‘한국황실처분’의 정략적 함의」 『규장각』 5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pp.303-330.)

3) 실무를 담당한 것은 이왕직으로, 종묘·능원묘의 제사를 거행, 경성에 주재하던 외국사절의 謁見, 行幸, 宗廟 祭祀 등 의례적 행사는 대한제국기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이왕무, 「1910년대 순종의 창덕궁 생활과 행행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9, 2014, pp.295-324; 이왕무, 「1917년 순종의 일본 행차[東上]에 나타난 행행의례 연구」, 『韓國史學報』 제57호, 高麗史學會, 2014, pp.289-323.)

4) 국외의 현황으로는 일본의 궁내정 書陵部 공문서관, 外務省 외교사료관, 防衛省 방위연구소, 국가공문서관 등에 이왕가 자료의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장서각 소장 이왕가 자료의 성격

장서각은 李王家 圖書室에서 시작되고, 이 도서관은 奎章閣 奉謨堂<sup>5)</sup>을 전신으로 한다. 도서관을 담당한 부서는 대체로 이왕직의 서무과였고, 宮內 各處에 흩어져서 보관되는 典籍들을 한데 모아 傳來된 조선 왕실의 도서들을 보관한 곳이기도 했다. 이왕가 도서관은 수장과 보관 목적의 장서시설이었으면서,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한 소수의 이왕직 직원들에게 借覽이 허용됐다. 이렇게 볼 때, 이왕가 도서관을 명칭에 국한하여 일반 시민 대상의 ‘Library’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왕가 도서관은 이왕가와 관련한 典籍를 중심으로 多種의 繪畫, 地圖, 拓本 등의 守藏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장된 자료는 그 연원에 따라 셋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이왕가 형성 이전, 조선왕실에서부터 전래되는 典籍’, 둘째 ‘이왕직 존속 기간 동안 생산된 文書群’, 셋째 ‘이왕직 해체 이후 流入되어 소장하게 된 典籍’이다. 이왕가 자료는 조선의 일반적인 대상이 중심이 아니었고, 대체적인 당시의 사회상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장서각의 이왕가 자료는 ‘赤裳山 史庫本 實錄’, ‘各營 所藏 謄錄 儀軌’ ‘軍營燈錄’, ‘宗廟 자료’, ‘궁궐 건축 도면’, ‘璿源譜牒類’ 등과 구입 및 기증된 자료들이 增藏되면서 형성되었다.<sup>6)</sup> 즉, 『朝鮮王朝實錄』, 『王·公族實錄』, 왕공족의 일기자료, 보첩류, 선원계보, 조선 왕실과 그 禮式에 관련한 자료 등에 집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왕가 자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이왕가와 이왕직이 존속하던 시기에 생산된 자료들이다. 위 자료들은 천황가에 소속된 家로서 갖춰야하는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國朝寶鑑編纂關係書類』는 1936-1938년 사이에 이왕직의 主殿課에서 『高宗·純宗實錄』을 편찬하면서 관련된 서류를 모은 자료이다. 장서각 유일본으로, 역대 국왕의 선행과 치적을 중심으로 편찬한 조선의 國朝寶鑑 체제를 이어받아 실록 제작과 함께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sup>7)</sup> 實錄 제작의 경우는 궁내성으로부터 필요가 언급된 사례이다. 단, 일본의 실록 제작 방식<sup>8)</sup>에서 착안되었다. 또 하나의 사례는 『王·公族譜』가 있다. 英親王과 李方子の 혼인으로 본격화되면서 『皇室典範』의 수정과 『王公家軌範』의 작성은 왕공족의 지위를 규명했다. 황족과 왕족의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천황가의 왕가와 공가로 격하된 이왕가는 천황가에 편입되었다는 증거로 『王·公族譜』의 작성이 요구된 바 있다. 당시 구황실족보를 개작하는 사업의 중심은, 구황실을 現 이왕가의 처지에 맞게 수정하면서 『璿源系譜紀略』과 『列聖皇后王妃世譜』에 李方子를 수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한편으로 이왕직은 祭祀에 관련한 기록을 다수 제작했다. 『宗廟日記』를 통해 계속해서 종묘를 관리하면서 제반의 상황을 기록했고, 『宗廟永寧殿大祭及親祭陳設圖』와 같이 조선에서부터 전해져오는 제기와 제사음식을 漢文과 일본어로 새로 정리한 사례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서각이 구성되고 운영된 것은 단순히 보관과 도서관의 縱覽으로만 활용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장서각은 이왕가 도서관에서 운영한 일종의 자료관[archive]이었다. 그리고 장서각의 이왕가 자료는 이왕가의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시도에서 생산된 성격이 짙었다.

5) 朝鮮 正祖는 왕립도서관의 개념으로 규장각을 설립했다. (『정조실록』 권1, 즉위년 9월 25일.)

6) 『古圖書目錄』, 李王家 藏書閣, 鮮光印刷株式會社.

7) 신명호, 「일제하 高宗純宗實錄·高宗純宗國朝寶鑑의 편찬과 장서각 자료: 實錄編纂參考書目錄과 國朝寶鑑編纂關係書類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9호, 2000, pp.147-167.

8) 永島廣記, 「일본의 실록 실록편찬과 조선왕공족」, 『근현대 구(舊)왕실 관련 자료조사 집성 연구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실, 2015, pp.1-14; 정옥재, 「日本宮內廳所藏 ‘公族實錄’의 편찬과 특징」, 『한국사학보』 64, 고려사학회, 2016, pp.33-50.

### 3. 이왕직의 이왕가 家務의 범위와 分掌의 고찰

1910년 12월 30일 시행된 ‘「이왕직관제」(明治 43년 12월 황실령 제34호)’ 제1조에서 이왕직은 “宮內大臣의 管理에 속한 王族 및 公族의 家務를 관장”하는 부서로 명시되었다. 그 사무는 기존의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인계받았다. 이왕직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事務分掌規程>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왕직 조직은 존속한 기간 동안 개편이 계속되었다.

이왕직 출범 당시, 1911년 2월 1일에는 5개의 계 ‘庶務係, 會計係, 掌侍係, 掌祀係, 掌苑係’<sup>9)</sup>가 존재했다. 1911년 2월 1일 이왕직 출범 당시 ‘5계 13실 1관 2원’<sup>10)</sup>이던 이왕직은, 1913년 7월 24일, 이왕직 發 第185호<sup>11)</sup> <이왕직사무분장규정> 개정으로 장사계가 삭제되어 ‘4계 11실 1관 2원’ 체제로 변화했다. 1915년 3월 24일 이왕직의 직원 사무 분장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의 ‘係’체제가 ‘課’체제로 변모하고, ‘장시사, 서무과, 회계과, 주전과, 제사과, 농사과, 장원과’의 ‘1사 6과체제’가 되었다. 1916년 6월 10일, ‘의식과’가 신설되면서 ‘1사 7과체제’로 재정비되었다. 1918년 6월 15일 <이왕직사무분장규정>이 네 번째로 개정되었다. 주전과가 영선과로 개칭되고, 농사과가 삭제되었다. 1920년 10월 30일의 개정에서 이왕직은 ‘장시사, 서무과, 회계과, 예식과’의 ‘1사 3과 체제’가 되었다. 이왕직은 1920년 1사 3과체제로 변경된 이후, 직원 감축을 위한 체제 개편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왕직 조직의 변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부서는, ‘순종 근시부서’, ‘왕족부와 공족부’, ‘행정담당의 서무와 회계 부서’, ‘제사 담당 부서’ 정도로 소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왕직의 가무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다. 이왕직의 부서 변경은 직원 감축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이왕가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시도였다. 구성원의 사망이 있으면 해당 부서는 폐지되었고 동시에 이에 따른 부서 개편이 계속되었다.

한편 이왕직이 주 업무로 배당받은 것은 ‘이왕가’를 천황가의 일원으로 그 지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조선왕실의 종통의 예를 이어가지만 천황제의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왕직의 업무가 배당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서각 소장의 이왕가 자료는 이왕직이 제국 일본에 있어 하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그것은 이왕가의 설치가 자발적인 복종을 발현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목적이 될 것이다. 즉, 선행된 해석처럼 이왕가가 조선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것에 편승하기 보다는, 이왕가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이왕직에서 주로 담당했던 ‘제사’와 ‘역사서, 계보의 작성’은 식민 통치의 필요에서 시작되었음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서무계’는 제1부서로, ‘贈答, 譜牒·詞章·古印 및 簿冊類, 각종 도장의 관리와 수장, 공문서류의 작성 및 보고, 도서실 관리, 직원 근태관리 외 總務’를 담당했다. ‘회계계’에서는 ‘經理, 재산, 營繕, 庭苑 및 창덕궁과 그 부속물의 管守’를 관장했다. ‘장시계’는 순종, 창덕궁 이왕의 近侍 부서였다. 관장한 사항은 ‘창덕궁의 身側, 診候·調藥 및 衛生, 內人, 供膳 및 饗宴, 儀式 賓客接待 및 車馬使用’과 같다. ‘장사계’에서는 ‘祭祀, 廟祭, 殿祭, 宮 및 墳塋의 管守, 雅樂’의 사항을, ‘장원계’는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 관장했다. 왕족과 공족에 관해 분장된 사무는 각 宮별로 구분되었는데 그 내용의 대략은 ‘장시사’의 업무와 大同小異한 편이다.

10) 서무계 ‘인사실, 조사실, 문서실, 도서실’, 회계계 ‘경리실, 영선실, 주전실, 구사실’, 장시계 ‘찬시실, 예식실, 선무실’, 장사계 ‘능무실, 제의실’, 장원계 ‘박물관·동물원·식물원’ (李王職職員錄), 李王職庶務係人事室, 1911, 국립중앙도서관)

11) 李王職庶務係人事室, 『大正3 7월1일 現在 李王職職員錄』, 1914, pp.4-7p, pp.14-39; 장신, 「일제하 이왕직(李王職)의 직제와 인사」, 『장서각』, 2016, pp.75-76.

12) 『순종실록부록』 권6, 순종 8년 3월 24일; 『조선총독부관보』 제791호 1915년 3월 26일; 『순종실록부록』 권7, 순종 9년 6월 10일; 『순종실록부록』 권9, 순종 11년 6월 15일; 『순종실록부록』 권11, 순종 13년 10월 30일; 『조선총독부관보』 제1591호, 1921년 4월 4일; 제3256호, 1923년 6월 19일; 제4148호 1926년 6월 18일

#### 4. 향후의 과제

제국 일본은 대한제국을 ‘조선’이라는 식민지 영역으로 삼으면서 두 가지의 식민 통치 방식을 적용시켰다. 주지하듯 ‘조선총독부’와 ‘이왕가’의 설치이다. 대체로 일본은 하나의 경우만 적용시켜왔다. 대만, 만주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오키나와 정도가 후자의 사례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에 한해서만 두 가지 모두를 적용시켰을까?

종래의 식민지 역사 연구는 ‘개발론’과 ‘수탈론’의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왕가의 설치는 주된 해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사료된다. 지금에 이르러서 많은 연구들이 왜 일본이 큰 이익의 소출이 없는 조선을 식민지로 선택한 이유를 식민지 기구의 목적을 통해 해명하고 있는 現狀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이왕가 연구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왕가 연구는 주된 분석자료로 볼 수 있는 이왕가 자료의 전체적인 확보가 이행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가 생략된 채 지금에 이르렀다. 자료가 散在해있는 현실은 자료의 전반적인 해석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 역으로 이왕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제국 말-일제강점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여러 가지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관계로 사건의 선후 정리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터이다. 제국 일본이 이왕가를 조선 왕실의 종통을 활용한 것, 그리고 이에 대한 당대 인식, 이왕가 자료라는 이름으로 해방 이후 유입된 자료와의 연관성 등의 일련의 질문은 이왕가와 이왕직 존속 기간의 사건들이 해명되면 하나씩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古圖書目錄』 李王家 藏書閣 鮮光印刷株式會社  
『李王職職員錄』 李王職庶務係人事室  
『李王職職員錄』 李王職庶務係人事室  
『조선총독부관보』  
『순종실록부록』  
천혜봉(1996)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신명호(2000) 「일제하 高宗純宗實錄·高宗純宗國朝寶鑑의 편찬과 장서각 자료: 實錄編纂參考書日錄과 國朝寶鑑編纂關係書類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9호  
新城 道彦(2011) 『天皇の韓國併合』 法政大學出版局  
이왕무(2014) 「1910년대 순종의 창덕궁 생활과 행행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9  
이왕무(2014) 「1917년 순종의 일본 행차[東上]에 나타난 행행의례 연구」 『韓國史學報』 제57호 高麗史學會  
永島廣記(2015) 「일본의 실록 실록편찬과 조선왕공족」 『근현대 구(舊)왕실 관련 자료조사 집성 연구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실  
장신(2016) 「일제하 이왕직(李王職)의 직제와 인사」 『장서각』  
李旺茂(2016) 「대한제국 황실의 분해와 王公族의 탄생」 『한국사학보』 64  
정옥재(2016) 「日本宮內廳所藏 ‘公族實錄’의 편찬과 특징」, 『한국사학보』 64 고려사학회  
윤대원(2017) 「일제의 한국병합과 ‘한국황실처분’의 정략적 함의」 『규장각』 50 규장각한국학연구원